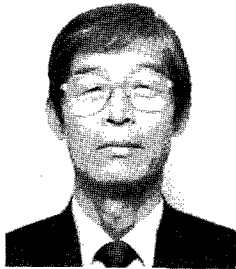


컴퓨터는 우리농장의 일부



이 동 수
양정농장(본회 부산경남지부)

컴퓨터를 농장경영에 응용하기 시작한 것은 3년전 초가을이다. 이전에는 PC는 농민들에게는 멀고 먼 저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처럼 아름답기는 하지만 접근할 수 없는 신기루로 보였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둘째딸이 사용하던 286 PC를 인계 받았는데 처음에는 딸로부터 심심풀이로 테트리스 게임을 배웠다. 게임을 하는데도 영문자 몇자를 입력해야 했고 따라서 DOS를 배워야했고 또 DOS를 배우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그러면서 DOS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정신을

소모했고 겨우 문서작성의 기초를 터득했을 때에는 기진맥진이 되었었다. 그저 타자기보다 편리하다는 정도였으나…….

나이들면서 어쩔 수없이 감퇴하는 기억력과 무디어버린 손가락의 유연성은 3년째 자판을 두드렸는데도 별 수없이 지금도 자판을 보고 또다닥다닥이다. 다행히 해군에 근무하던 시절(공작함 자재담당반장을 하면서) 배워둔 영문 타자기가 늦게나마 대단한 도움이 되고 있다. 한글타자는 서툴러서 PC를 배우면서 같이 배우게 되었지만 옛날의 공병 타자기에 비하면 자판 배우는 것은 거저먹기였다. 타자기 확원까지 다녀본 일도 있지만 지금의 PC처럼 자판 배우기 쉬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286에서 3개월만에 486으로 교체했었다. DOS를 배운다고 고생고생하면서도 못다 배웠는데(지금도 DOS는 맹꽂이) 컴퓨터 활용을 농장경영에 접속시키는데 눈부신 속력이 붙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지난 여름에 586 최신형으로 다시 교환했다. 윈도우 3.1에서 윈도우 95를 다시 배우느라 또한번 곤욕을 치루고 있다. 486은 교육대학에 입학한 막내 딸에게 인계하고…….

PC는 농장(육계사육농장)경영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되었고 덕분에 내 책상에서 장부와 많은 종이가 사라졌다.

PC를 작동시키면 제일처음 시작 프로그램에 “비망록”이 뜨고 여러 가지 메모를 기록하고 삭제한다.

바탕화면에는 농장에 필요한 7개의 Group 화면이 뜬다.

1. 농장: 계사, 온풍기, 육추기, 양수기, 관리기, 자동차, 공구(계사, 장비, 기구 등을 기록한다.)

2. 농장관리 : 사양기록부, 사육결산, 원가계산, 약품, 계분판매, 양계질병(농장의 사무처리를 하는 곳이다)

3. 사무방 : 전화번호, 시세표, 복사목록, CD 재생기, 한글3.0, WORD7, EXCEL7(농장관리 외에 문서작성하는 곳)

4. 통계자료 : 기본통계, 년·월·주통계, 사료종계, 사료전기, 사료후기, 추잠재력(시세전망에 필요한 수집되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곳)

5. 시세전망 : 겨울, 봄, 초복, 추석, 시세전망(육계는 계절에 따라 생산량, 시세 등의 변화가 심함으로 시세변화가 심한 시기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주로 차드중심으로 작성되어 분석하는 곳)

6. 육계협업 : 금전출납부, 입추대장, 개인정산서, 적입통장, 사료거래대장, 협업소식지(거제육계협업의 사무를 관장하는 곳)

7. 통신 : 통신, 편집기, 농동방, 축산방, 팩스(PC통신, 편집, 송금, 팩스를 하는 곳)

PC를 사용하면서 제일 편리하게 느끼는 것은 사양기록부이다. 사양기록부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경영기술 축적에 많은 도움을 주며 사육상의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자료는 여러모로 참고가 되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앞날의 농장의 경영지표가 되기도 한다. 30년 가까운 농장 경영을 하면서 시작한 사양기록부는 항상 노트에 줄을 긋고 1년이 지나 연말이 되면 사양기록부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때가 묻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몇 번을 반복하다보면 장부라기보다 아예 낙서장 같이 되어 버린다. 그러나 노트에 기록하던 사양기록부는 이제는 지나간 유물이 되어 버렸다. PC는 이러한 결점을 완전하게 해결해 준다. Excel에서 기록하게 되니 신

속, 명료, 편리하고 깨끗하기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록뿐만 아니라 계산은 계산기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또 그림, 도표도 간단하게 첨부할 수도 있다. 지저분하던 장부는 자연이 없어져버렸고 대신 깨끗하게 정리된 복사본만을 한부씩 인쇄하여 남겨두게 되었고 양이 많고 복잡한 것은 플로피디스크에 복사하여 둔다. 몇 개되지 않는 농장 장부조차도 플로피 디스크 한 장이면 족하다. 사육결산, 원가계산도 스스로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할 수 있고 경영분석도 어렵지 않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농장의 작업능률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육계작업에 지칠때는 PC에서 음악을 들으며 사무처리를 하는 즉 작업과 사무의 시간대의 균형을 유지하여 심신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장부정리하다가 머리가 피곤하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PC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멋이다. 더욱이 PC작업을 하면서 마우스로, 자판으로 조절을 하고 음악을 감상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가? CD 값이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레코드나 테이프에 비하면 편리하고 간편하고 깨끗하고 보관하기 쉽고 또 저장량이 많다. 그 위에 평생 음치소리를 듣는 형편에 즐거울때나 우울할때면 PC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다보니 음치는 음치라도 통닭음치는 겨우 면하게 되었고 가족들이 노래연습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즐겁기만 하다.

사육, 원가계산, 통계자료, 협업의 금전계산 등 모든 계산은 PC에서 계산을 한다. 계산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PC(EXCEL)에서 직접함으로써 계산하는 시간이 절반도 안되게 단축되어 모든 계산이 신속, 정확, 간편해졌다. 정확하게

숫자만 한 번 입력하면 가감승제는 순식간에 정확히 이루어지며 프린트에서 인쇄함으로써 계산서나 거래장부가 따로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한 계산들은 거래처의 신용을 얻게되는 기초가 되었고 누구 한사람 계산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육계는 사육기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은 아직까지는 시세의 등락폭이 너무 심해서 시세관측을 하는 것은 농장운영에 있어서 사활이 달려있는 일이다. 즉 언제 입추를 해서 어느 시기에 출하를 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육계에 있어서 시세관측은 대체로 탐문, 경험, 육감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비과학적이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하지만 통계를 활용하여 시세를 관측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입추시기의 적중확율을 높여준다.

통계에 의한 시세의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1. 첫째 육계배합사료, 병아리, 종계, 시세 등의 물동량 통계를 수집해서 데이터화 해야 한다.

2. 둘째 연도별, 월별, 주별로 수집한 통계를 데이터화한 것을 그래프로 그리고 그린 그래프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가공해야 한다. 가공된 그래프를 검토한 후에 입추의 시기를 결정한다.

3. PC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그래프를 그리느라 제일 큰 그래프용지에 밤샘을 하다시피하면서 정성드려 그려도 자칫 선하나 색깔하나 잘못 그리면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PC의 위력은 대단하다. 일정한 서식만 만들어 놓고 숫자만 입력하면 단 몇초안에 자동으로 그려줄 뿐만 아니라 또한 정확, 명료하다. 잘못 그려도 수정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면 한가지 자료를 다각도로 관측할 수 있고 그래프를 단시간내에 여러장 그려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몇 년씩을 그리다 보면 머리속에 자연히 그래프가 떠올라 새로운 숫자만 보아도 어렵짐작으로 머리속에서 그릴 수 있고 시세관측도 가능하다. PC를 이용한 이후에는 80%의 확률을 갖는 관측이 가능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PC를 열심히 배워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수금, 송금 때마다 은행에 다니던 불편은 옛이야기가 되었다. 농협 일렉트로 뱅크서비스를 이용하면서부터는 작업을 하다가도 입금확인, 송금 등은 단 10분이면 농장 사무실에서 끝낸다. 사료회사, 가축약품, 부화장, 닭상인과의 거래는 농협 일렉트로 뱅크서비스를 이용한다. 10분거리에 있는 은행에 갈때마다 세수하고 옷갈아입고 머리빗고 하던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왕복하면서 소비하던 많은 시간이 절약되었고 교통비, 송금료도 부담이 없어졌다. 덕분에 모든 거래처에서 확실한 신용을 얻었고 10여명이 모여서 조직한 육계협업의 금전출납은 사무원 없이 간단히 해결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절약되고 있다.

거래상인으로부터 입금되는 것은 일괄 입금되고 회원들에게는 PC를 통해서 송금한다. 따라서 회원들의 물품대금의 수금은 시간, 교통비, 송금료 등에서 많은 낭비를 없앤다. 거제도처럼 아직 PC를 이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러한 거래방식이 자연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사료, 약품, 부화장, 이웃 육계농장, 닭상인

운반차 등등……. 거래처의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한다. PC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것 역시 노트나 전화기록부에 기록하였는데 오래 사용하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누덕이가 되어 버리기 일쑤였다. 나이를면서 건망증이 심해 공중전화 박스에서 전화부 노트를 가끔 잃어버린다. 그리고서 새로 만드느라고 끙끙거리며 맥이 빠져 자책하면서 다시 만들었다. 그러나 PC를 사용한 후에는 이러한 불편이 없어졌다. 수시로 PC에서 정정을 하고 기존 인쇄한 전화부가 보기 힘들게 되었다 싶으면 가끔 한 번씩 새로 인쇄해 버린다. 그렇게하면 언제나 정리된 전화번호부가 된다. 앞으로 PC가 온 국민들의 생활화되는 날이 오면 PC지갑을 들고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때에는 건망증의 서러움을 면할 것 같다.

매일 새벽에 기상하면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PC를 작동시키는 것이 그날의 첫 작업이다. 벌써 3년째 똑같은 일과이다. 그리고 제일 처음 AFFIS에 접속한다. 농민에게는 AFFIS는 필요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처음 들리는 곳은 6번의 뉴스 인물이다 좋은 정보들이 많다. 신문의 축산(닭 관계) 관련 기사는 모조리 검색하고 월간잡지들을 한 번씩 살펴본다. 필요한 것은 갈무리하고 인쇄를 하고 분류하여 철하여 둔다. 농장에 방문오는 축산관계자들과 육계협업회원들에게 항상 읽도록 권하고 공개한다. 두 번째는 축협의 한우리 정보에서 국내소식과 육계의 시세를 살핀다. 세 번째가 게시판과 동호회로 들어간다. AFFIS의 동호회는 항상 통신속에서 고향과 같은 느낌을 받는 곳이다.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과 농촌의 생활상과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영농전

“

농장을 운영하면서
PC에 대해 느끼는 것은
보다 많은 농어민들이
PC를 활용해서
농장운영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

반에 걸쳐 폭넓은 이해를 갖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육계사육농가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으니 전국적인 교신이 없는 것이 아쉬운 일이다. 현재는 진도는 느리지만 인터넷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

금년초에 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육계농가 10호정도가 모여서 육계생산의 원가절감, 계통출하, 생산성제고, 소득증대 등을 목표로 거제 육계협업을 조직하였다.

협업운영에 있어서 PC의 활용은 회원의 정산서 작성, 각 회원의 경영분석, 협업의 회계, 입추 및 출하계획표 등 사무원 없이 10여명 협업회원의 사무처리는 간단히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정기적으로 만들고 있는 협업회보는 회원들간의 단결심을 한층 강화하는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의 단순화, 인건비, 송금비, 시간의 절약 등 회의 운영상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고 회원들은 안심하고 농장운영에만 전념하고 있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PC에 대해 느끼는 것은 보다 많은 농어민들이 PC를 활용해서 농장운영을 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양계**